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 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사명자대회 새벽기도 · 매일 오후 전도로 뜨거운 열기

매일 새벽을 깨우는 기도와 오후의 교구별 전도의 열풍이 2001 사명자 대회 마지막 2주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새벽 미명에 본당을 울리는 우리의 기도소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이종윤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주기도문 강해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한다. 이번 주에는 사도신경 강해로 이어진다.

또한 오후에는 각 교구별로 교회와 이웃한 한티공원에서 교구 담당 교역자의 인

다음주 장로 임직식 · 추수감사 · 교회설립 10주년 감사 예배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주일이 1주 앞으로 다가왔다.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여 많은 행사를 갖게된다.

먼저 주일 낮 I, II, III부 예배 시에 추수감사절 예배와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갖고 저녁찬양 예배 시에는 장로 임직식과 교회설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찬양예배 시에는 지난 5월 27일 공동의회시 투표를 통해 피택된 7대 장로후보

오늘은 태신자 초청주일

사명자 대회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I, II, III부 예배 시에 태신자를 초청하는 행사를 갖는다. 교회는 제출된 태신자를 초청하는 우편물을 이미 발송한 바 있다.

태신자 명단을 제출하신 성도는 기도한 후 태신자에게 한번 더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예배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한다.

12월 8일(토) 23사단 세례식

오는 12월 8일(토) 제23사단에서 비전2020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진증세례식이 있을 예정이다. 비전2020 운동본부는 이날 준비하여 가져간 선물을 국군 장병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오늘 저녁예배 추수감사 찬양예배로 드린다

우리교회는 오늘 저녁 찬양예배를 추수할 많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찬양예배로 드린다. 가브리엘 찬양대가 순서를 맡게 된다.

성경대학 수료식 갖는다

2001년도 2학기 성경대학 수료식을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갖는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사대학-

강신실 권지향 김혜경 박형수 양춘경 윤숙희 이경화 이경희 이인숙 최희정 박현영 정정숙 김은태 전하미 김복승 황의호 김태기 신용식 이영기 이영숙

-아모스반-

김복녀 김유경 김인순 김은정 김애경 박현영 박현주 배영애 서춘식 송득심 이경구 이민화 이화자 이해정 한정원 전용순 허인숙 심재을 김종자

-전도학교-

박한옥 송경점 김영란 박상희 조정옥 이남복 김옥순 최희재 주화인

-음악교실-

유을상 박광식 이태인 유관모 박현주 이순희 김옥순 박춘자 이화자 김현숙 김복승 강신실 최용걸

-고린도후서반-

오승민 김규순 전하미 김은태 옥재만 왕원희 최규초 김정애 김옥순

-지도자반 (L.T.C)-

최희재 김양숙 옥재만 정유선 이양구 노임숙

술하에 자리를 마련하고 따뜻한 차와 음식을 준비하여 오가는 이들을 대접하며 전도에 힘을 써,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우리의 마음이 추운 겨울을 녹이며 얼어붙은 심령을 따뜻하게 해우고 있다.

마지막 남은 1주간, 우리의 심령을 가다듬어 더욱 알차게 헌신하도록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자.

▶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금요기도회 주관부서

월 일	교 구	전도회	교회학교	부서
11.23(금)	10. 11. 12	아브라함,사라	중등부,고등부	스데반회

▶ 70인 전도대 주력 부서

월 일	교 구	남선교회/여전도회
11.24 (토)	11.12교구	엘리야, 에스더

▶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새벽기도회 주관부서

11.19(월)	11.20(화)	11.21(수)	11.22(목)	11.23(금)	11.24(토)
3.4교구 온빛 소망부 마리아 진행분과	5.6교구 임미누엘 새가족부 새가정부 엘리야 홍보분과	7.8교구 베들레헴 유년부 초등부 에스더 전도분과	9.10교구 호산나 중등부 모세 기독분과	11.12교구 시온 고등부 한나 아브라함 전교인 총동원	2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연합찬양대 (가브리엘주관)



지난주 우리교회는

① 11월 15일 4교구의 노방전도모습 - 추운 날씨에 따뜻한 오뎅을 대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② 20학기 목회자세미나를 마치며 - 10 Years Round Table Members들의 모습. 10년간 한결같은 참석을 감사드린다.



이사야서 강해

고난의 종 메시아 (I)

(이사야 53장 1 – 6절)

예수님은 '여호와의 의로운 종'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그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종윤 목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고통 자체보다 그 같은 고통을 혼자만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면 고통의 무게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세상 역사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 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일 뿐 아니라 천지만물의 주인으로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시었으나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와 멸시, 배신과 죽음까지 당해야 하는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사실 죄 많은 우리는 고통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호와의 의로운 종'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그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왜 고난을 받으셨나

산고를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나고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면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주어지듯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을 받으셨고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대속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1) 메시아의 고난은 대리적 고난이다

야구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슬럼프에 빠지면 선수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대체 세대'라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탕은 사카린으로 대체하고 벽돌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말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의 명단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해서 그 자리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왕자의 교육을 위해 왕자가 잘못하면 대신 매를 맞는 아이(wheeping boy)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로 영접하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과 평화, 기쁨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은 없으며"(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6절).

이 세상에는 손 없는 사람도 있고 발 없는 사람도 있고 감정이나 웃음이 없는 사람은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를 대신해 주실 분이 없다면 우리는 져주와 영원한 멸망의 구렁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의 행렬에 있는 한 사람, 몇 분 후에는 전기 의자에 앉아 집행관의 명령과 동시에 그 생명은 끝나고 맙니다. 만일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누군가 그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땅위의 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놀라운 지혜는 '대리 죽음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확인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는 인간이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간이 되어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 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찔리시고 상처를 받으시며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4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징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고난의 채찍을 받으셨습니다(5절). 그리므로 문둥병자 같은 우리 영혼은 소망 없는 상태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적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

게 된 것입니다.

(2) 메시아의 고난은 대속적 고난이다

이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많이 있지만 기독교만이 속죄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 사역을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 성취시키셨습니다.

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므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6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

그리스도 없이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고난받으신 좋은 자신을 속건 제물로 바치셨습니다(7절).

틸 깍는 자 앞에 서있는 양처럼 주님은 묵묵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③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성취되었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셨습니다.

④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넘어져도 주님은 넘어지지 않으시며 우리는 종종 낙심해도 주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백혈병 환자나 피가 모자란 사람들에게 수혈을 하면 잠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다시 피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항상 새 힘을 주시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매일 그와 교제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이 말씀은 리빙스턴 선교사의 잠언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⑥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술주정뱅이가 복음을 증거자가 되고 악한 차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메시아의 고난은 대리적 고난이며 대속적 고난입니다. 메시아가 고난 당하시므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최양예 권사(제2권사회 신임회장)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를 만나면서부터 인생을 시작하고, 자라면서 친구와 스승을, 더 나아가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영향력을 주는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과도 만납니다. 어떤 이는 행복을, 어떤 이는 불행을, 어떤 이는 기쁨을, 어떤 이는 슬픔을 만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무엇인가 순간 순간마다 시시각각으로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환경을 잘 만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복중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더 큰복은 하나님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있는 교회를,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능력 있는 주의 종을 만난다는 것은 성도에게는 가장 값진 축복입니다.

20년 전 시어머님의 임종을 앞두고 교회에 발을 들어놓았지만 10여 년을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던 중 주님은 나에게 서울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끓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기만 한 나에게 주님은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신 것만으로도 벽하고 감당하기 어려운데, 제2권사회의 회장으로 세우시다니요.

주님 저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아시죠? 1년여 전부터 새벽예배를 가고 오는 중에 내 입에서는 찬송88장「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를 부르던 내가 막 상 일 하라시니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어찌 감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 11:29)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김영준 장로(가브리엘 친양대 대장)

교회 설립 10주년과 추수감사절을 맞아 가브리엘 친양대가 주목 같은 성가 11곡을 모아 오늘 찬양예배 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 아침이면 교회 제일 먼저 오는 가브리엘 친양대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론 어머니, 아버지 연배의 대원들도 한 몫을 하며 청아하기만 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성숙하게 감싸는 그야말로 완벽한 찬양대라고 자부합니다.

아침잠을 설치며 저마다 단장을 하고 교회에 오는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또한 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연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함께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며 성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브리엘 친양대는 오전 7시 30분에 연습을 시작하여 1부 예배를 드리고 12시 30분까지 다음 주일 찬양을 위한 연습을 합니다. 명년에는 찬양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 찬양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소연(청년부 신임 부회장)

저는 2002년 청년부 부회장으로 불려주시고 세워 주신 하나님과 여러 청년 자체분들에게 빛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그 동안 받은 사랑의 빛들을 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청년부 선-후배님들과 목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지난 시간동안 수많은 눈물의 기도로 씨앗들을 뿌려주셨고, 귀한 섬김의 본들을 보여주셔서 저의 짧은 날이 얼마나 풍요로와 겼는지 기억하며 이제 제가 그 섬김의 자리에 서고 보니 많이 떨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큐티를 통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신명기1장 33절)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거할 곳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에 엎드려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아버지가 계시기에 담대 하려 합니다. 제10대 서울교회 청년부의 임원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축제의 자리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겹겹이 배열해 놓으신 은혜들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 뜻대로 가나안 땅을 진군해 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부양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이 신령과 진정함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소원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 넘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김용호 (대학부 신임회장)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며 말씀에 따라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행할 때 처음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삶이라고. 너의 삶의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하시라고. 처음 후보로 오르게 되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온갖 부담감과 자신에 대한 두려움들이 먼저 표면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지만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라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셨듯이 동일하게 그 삶을 이끌고 나가실 것임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위한 시간들일 것임을. 두려움과 부담감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 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게 만들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해가 지난 후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앞서 행하시며 모든 시간 가운데서 저를 사랑하시는 끝없이 최고의 것들을 취하기 위한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신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로 하여금 끝없이 하나님을 친양하게 하시며 입술로 하나님의 이루신 것들을 선포하게 하소서.'

목회자 신학세미나 10돌을 맞으며

손명철 목사

서울교회의 창립과 신학세미나가 시작된 것이 어제인 듯 한데 벌써 10년 20학기를 보내게 되었으니 참으로 그 동안의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92-0351 학번으로 태백광산촌에서 목회하다 은퇴한 원로목사로 현재 캘린더 사역을 통해 바울학회 선교와 개척 4년 되는 노량진 침례교회의 협동목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강의 중 이종윤 목사님께서 은퇴목사를 영어로 Retired Paster-낡은 타이어를 같아 끼워 다시 일하게 한다는 뜻에서 은퇴목사는 물려나 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찾아 열심히 다시 새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에 힘을 얻어 기뻐 감사했습니다. 10년 전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인도해주셔서 강원도 태백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열차 타고 와서 세미나 장소인 YMCA까지 오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서울교회 여러분들의 사랑과 친절은 부러움과 감사였습니다. 더욱이나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와서 출출할 때 먹던 컵라면과 김밥은 정말 별미였습니다.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며 인사를 나누셨던 모든 서울

교회 성도님들의 그 모습은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뇌리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기억될 것입니다. 금년 봄부터 서울교회 새 예배당에서 새로이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서울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

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대안으로 먼저 우리 목회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기에 엄청난 투자와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이며 현신적으로 오늘에 이르도록 수고하고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세미나 동문 목회자 여러분! 20학기 동안 배우고 닦은 말씀과 지식이 헛되지 않도록 가슴에 새겨 각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 개신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세미나를 통해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으며 지금도 빠짐없이 계속 나다는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이고 진솔한 강의 내용은 나의 영육간에 건강을 보존하게 해주셨고 또 넓게 활동할 수 있는 사역의 영역도 얻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서울교회와 신학세미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겸손에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울교회의 수고에 보답하는 길은 모두가 협력하고 화합하여 한국교회의 개신과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도록 지속적인 배움과 혁신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목회자세미나가 회를 거듭하여 계속되며 많은 동문이 배출되어 예수의 종인, 복음의 증거자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이성득 목사

주님이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땅! 이스라엘 이스라엘 성지에 첫발을 내딛었다. 첫날은 12시간을 비행기에서 다보내고 다음날부터 성지순례의 여정의 시작된다. 먼저 텔아비브와 붙어있는 읍바 항을 방문한다.

복음을 들고 1, 2, 3차 전도 여행 중 수 많은 위험을 무릅 썼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생각난다. 이바다를 무대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전령이 되었던 바울이 외치는 소리가 파도와 함께 귓전을 때리는 것 같다. 또 이곳 읍바항은 어느새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역하고 요나가 배를 탄 곳이기도 하다.

버스는 가이사라로 달려간다. 헤롯이 건설한 대수로와 바닷가에 건설된 야외극장은 4000명이 수용되는데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미풍으로 마이크 없이도 목소리가 잘 전달되어 요즘도 한여름밤에 오페라나 음악회가 열린다.

이제 동북쪽으로 무크라카를 방문한다. 이곳은 갈릴산 정상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한 곳이다. 정상에서 동남쪽을 보니 다볼산 모래언덕

몇년전에 식당에서 사랑부 한 아이가 물을 달라고 해서 주다가 옷에 물을 다 흘려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부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계시는 사랑부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아름다웠고 사랑이 있어야 하지 은사가 있어야 하지 생각하며 5년을 그들과 지나쳐 갔는데 10년 전에 다른 곳에서 장애자들과 나누었던 시간들이 스쳐가며 저들을 나도 설길 수 있었으면 생각했습니다.

사랑부에 가면 아이들에게 냄새도 나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너무 힘들다던데... 하나님 저는 교만하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샬롬경로대학을 마치고

김진호 집사(11교구)

노년의 지혜와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이 요구되는 노인 층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설립된 샬롬경로대학은 어느덧 제3기를 마치게 되었다.

2001년 9월 6일에 개강하여 11월 8일에 종강하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서울교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3기 샬롬경로대학의 강좌에는 처음으로 색다른 원예반이 신설되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좋았고 에어로빅 반, 성경반, 컴퓨터반, 노래반 등 수준 높은 반으로 편성되어 각 학생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 서로가 경쟁적으로 선택과목에 열중하는 모습은 황홀의 시간이 더욱 활기차고 보

길보아산이 보인다. 주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엘리야선지의 절규가 산꼭대기 바람소리와 함께 들리는 듯 하다. 믿지도 요새를 방문한다. 이곳은 다른 말로 보면 아막센이다.

가버나움 회당을 찾아간다. 회당에 보니 앞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상석이 있다. 예수님이 모세의 자리와 회당의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하셨다. 늘 겸손해야겠다.

이제 헬몬산 기슭 북쪽지방으로 찾아갔다.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하는데 단은 북쪽 끝을 말한다. 물이 귀한 팔레스틴에서 단에는 요단강의 근원이 있어 물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자연히 신성시 되는 곳이다. 단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를 알것만 같다.

조금더 가서 파니아스(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한다. 지금은 폐허화된 도시이다. 이곳에 목축의신 "판(Pan)" 신의 신전이 있었다. 시리아와 접경인 골란고원을 돌아 본다. 폐허화된 집들 속 탄자국 부서진탱크 이스라엘 6일 전쟁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오늘부터는 갈릴리 호수주변을 돌아본다. 베드로 고기(Peter's Fish)가 나왔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갔다. 함께 간 목사님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다. 면과전을 받으며 주님을 생각한다.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행해졌던 갈릴리 북쪽의 벳세다 늪을 찾아간다. 5천

사랑부로 오세요

조선영(사랑부 교사)

지키시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파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시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부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게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 중 한 아이의 기저귀를 1년 동안 갈면서 냄새에 대한 예민함을 없애 주셨습니다. 저의 영혼은 사랑부란 훈련소에서 더욱 다듬어져 갔고, 교육 프로그램 하나 하나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크고 영원하심과 정말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람있게 보였다.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 층의 인사들의 교양강좌는 노인 학생들의 신심을 안정케 하였고 건강체조를 하며 모두가 보람을 느낀 듯 환호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특히 컴퓨터반은 머리가 하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움직이는 모습이 더욱 아름다웠다. 11월 1일은 기독교 유적지 순례를 하며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자적 신앙을 배웠고 연암초산원에대학 견학을 통해 분재와 꽃 재배 등을 견학하며 원예시간에 배운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10주간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학생들의 자질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함 것임을 알고 감사드린다.

앞으로 샬롬경로대학이 강의를 계속하여 발전하여 노년기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2001 사명자 대회 7대기도제목을 위하여
- 새로 임명될 2002년도 일꾼들을 위하여
-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I 부 오전 11시
예배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명 아니 5만명도 앉을수 있는 평평한 언덕이 펼쳐진다. 오병이 기적 기념교회, 팔복산에 팔복교회를 방문한다.

호숫가로 내려오면 요한 21장에 나오는 배경장소라고 하는 곳에 기념교회가 있고 그안에는 주님이 모닥불을 피워 떡과 고기를 구워 제자들과 함께 먹으신 것을 기념하는 베드로 수위원 교회가 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그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이다. 함께 가신 분들과 노래를 부른다. '저 멀리 봄은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집 내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녁노을과 함께 저언덕 위에서(海拔1500m) 예루살렘 성당이 보인다.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당을 바라보니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갈보리 언덕 즉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길을 따라가 본다. 구속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북돋아 오른다. 이제 마지막으로 쿰란과 맷사디를 거쳐 여정이 마무리된다. 헤브론, 사마리아, 베들레헴, 이런 지역은 지금 긴장상태가 고조되어 가보지도 못했다. 이땅에 빨리 살롬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성지를 밟고 주님의 흔적을 더듬어 찾아온 짧은 시간의 걸음이지만 감격이 넘친다.

기도해 주신 성도들과 성지순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종윤 목사님께 감사 드린다.

서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았다고 믿는 분들은 주지하지 마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사랑부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계획하심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풍성한 사랑을 만끽하고 나눌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사랑부로 오세요. 사랑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주세요 힘들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와 똑같습니다. 아니,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행복한 부서입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 깨어진 우리 아이들의 귀와 입과 손발이 되어 혼신하실 분들은 꼭 꼭 오세요.

참! 주위에 장애인이 있으면 저희 사랑부에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끝이라도 달려갈 겁니다. 10시 30분 1층 사랑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8일(주) 오후 초원교회 장로안수식 순서를 맡는다.

■ 권도성 김화숙 성도(9교구) 득녀

■ 권정아 성도(7교구) 득남

▣ 금주의 식사제작: 최학인 장로 · 최소희 권사

부친 장례식을 은혜중에 마치고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2001 사명자 대회 7대기도제목을 위하여
- 새로 임명될 2002년도 일꾼들을 위하여
-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